

# 김영록 지사, 'COP 여수 유치' 중동 세일즈 순방 나선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0일 개막 두바이 당사국총회 참관 국제행사 유치·신재생에너지 논의 순방후 공군항 협의·의과대 설립 활동

김영록 전남지사가 다음달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광주 민간공항·군 공항 이전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꾸려진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통한 국립 의대 설립 활동에도 적극 힘을 싣기로 했다.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동 순방을 통한 국제 행사 유치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두바이에서 개막하는 제 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참관하고, 2028년에 열리는 제 33차 당사국총회(COP33)를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8개 당사국이 모여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기후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로, 올해는 두바이에서 오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린다.

김 지사는 이번 총회를 활용해 전남의 탄소 저감 정책과 기후 대응 방향을 설명하면서 남해안남중권 유치 대표 도시 여수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또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이클레이) 대표와도 면담을 통해 COP 33유치 개최지로서의 당위성을 적

극 알릴 예정이다. 정부 대표 외교부 김효은 기후대사에게 33차 총회 개최지로 전남도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김 지사는 12월 1일 '연안지역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전남도 주관 국제포럼을 열고 아랍 에미리트(UAE)의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를 둘러본 뒤 전남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마스다르 시티는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차만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탄소배출 제로(0)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시티인 전남도 솔라시도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나서고, 지역 태양광(열)에너지 기업과 스마트팜 건설 기업 등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현지 기업 방문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사우디에서 열리는 '2023 KOR-KSA 에너지위크'에도 참석해 전남 신재생에너지 기업, 스마트 팜 기업의 기술을 선보이고 수출·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부 대표단과 프랭크 코우니 이클레이 회장 면담을 통해 전라도가 탄소중립 실천에 힘쓰는 등 그동안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으로의 33차 총회 유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해외 순방에 앞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광주·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순방에서 돌아온 뒤 즉시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포럼'이 28일 무안군 남악 스키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대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중동 순방 이후 이른 시일 안에 광주시와 협의해서 강 시장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3자 회동'에 대해 "지난 24일 3자 대화에 참석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무안군에 보냈다"면서 "광주시와 먼저 협의하면서 무안군을 설득,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광주시도 무안군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 3자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나서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강 시장이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을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해 통합시대로 크게 발전시켜보자는 말한 것은 굉장히 비전이 있고 무안에도 필요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로 꾸려진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관련, 김 지사는 "지역 대표들이 나서 국립의대 유치에 앞장서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영화 '300'의 300인 용사들처럼 비장한 각오로 도내 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루자"고 결의를 다졌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 맞춤형 의사를

양성하고 환자의 고통 타임을 지키면서 지역 공공 의료 사명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정책전문가, 경제계, 학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포럼도 열렸다. 공동위원장인 허정 에덴병원장, 주상운 전남도사회단체 연합회장,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강윤성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이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강기정·홍준표,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여야에 공동명의 건의서 전달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명의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그동안 제기됐던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건설과 선로 운영의 효율성 및 열차 안전성을 위한 복선화 유치 의견 등이 담겼다.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 부담 우려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와 대구시의 설명이다.

양당에 공동명의 건의서를 전달한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동발의한 만큼 매우 절실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마늘·양파 경작신고...1000㎡ 이상 경영체 연말까지

전남도가 2024년산 마늘·양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경작신고에 참여할 것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이는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의 마늘·양파 재배면적 통계조사가 현실과 차이가 있는 데다, 매년 정확한 재배 면적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기상이변 및 소비동향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작신고

대상은 마늘·양파 재배 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사)한국마늘연합회와 (사)한국양파연합회 누리집에 접속해 '경작신고 면적조사'에서 신고하거나 읍면동에 경작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인적사항, 경작지 주소, 품종명, 경작 면적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시민들 AI로 면접 연습하고 건강관리도 받아요"

'AI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2월 7일·21일 홈페이지서 신청 시민 체감형 28개 AI서비스 제공

앞으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28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광주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고, 광주지역 기업이 AI 제품과 서비스 고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지역 기업 중심 AI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시민은 오는 12월 7일(1차), 12월 21일(2차)까지 AI 바우처 홈페이지(<http://www.aica-gj.kr/voucher/>)에서 AI 서비스 및 제품 신청을 하면 된다. 광주시는 AI 제품 및 서비스 이용료 전액 또는 9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광주시민 대상 AI 바우처 사업은 ▲비즈니스 ▲의료·보건·복지 ▲교육·학습 ▲안전·방범·방재 ▲문화·관광·스포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8개의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분야는 블루캡슐 'AI 휴먼 아바타를 활용한 민원 안내 키오스크', 카라멜라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솔루션 D-OCEAN', 나눔 공간 '인공지능 디자인 비서 서비스 알로비' 등 10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보건·복지 분야는 이노디테크 '인공지능 치아배열 최적화 및 치아교정 장치', 팡닥터 '정신건강 AI 진단 솔루션', 디지털메딕 '노인용 AI 인지훈련 및 정서케어 플랫폼' 등 7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학습 분야는 디벨롭스토리즈 '스마트 스피치 시뮬레이션 콘텐츠', 밧글론 '인공지능 교육도구 밧글봇', 고스트패스 'AI 솔루션을 활용한 출결 시스템' 등 6개 AI 서비스를 선보인다.

안전·방범·방재 분야에선 세이프모션 '어린이 집 행동분석 솔루션', 에코피스 'AI 수질 관리장치 및 수질 관리 서비스' 등 3개 AI 서비스를, 문화·관광·스포츠 분야는 인디제이 '사용자 감정 맞춤 음악 스테이션 추천 라디오 서비스', 메타홍보 '숏폼 영상 인공지능 필터' 등 2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인디제이 '사용자 감정 맞춤 음악 스테이

션 추천 라디오 서비스'와 에코피스 'AI수질 관리 장치 및 수질 관리 서비스', 고스트패스 'AI 솔루션을 활용한 출결 시스템'은 내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4'에서 사전 선정하는 혁신상을 수상한 세계적 수준의 제품이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광주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AI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광주 AI 기업들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과 AI기업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일상에서 AI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체감 광주 AI 선도도시와 광주 AI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면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대기환경분야. 대표 환경전문공사업, VOC Treatment System, Solvent Recovery System, SCR De-NOx System, Sulfur(H2S) Removal System, Dust Collection System,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오벌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제조체 표창.